



제 10기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마치며...

올해로 제10기 주민자치위원회의 임기를 마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조례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 설치와 기능을 보면 「제15조(설치) 읍·면·동의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역 내 중요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 제1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읍·면·동장에게 그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고 하여 지역개발, 자치센터운영, 주요사업 예산 제안 및 건의, 지역단위 읍부즈맨 역할, 교통안전 시설 설치 의견제출, 시민교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읍·면·동 의회 기능을 나열하고 있다.

또한 주민의 대표성을 갖기 위하여 모집정원을 초과 시는 추천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대의기구 성격을 일부 포함하고 있고, 아울러 주민자치위원들은 일정시간 자원 봉사 활동을 하고 그 결과를 분기별로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제10기 일도2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고마로馬(馬)문화축제'의 성공적인 안착과 '초등생과 함께하는 클린체험', 전국 최초 '지역리더 양성 및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자치학교' 지속운영, '꽃답길 조성'사업 등 주민자치 주요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동 청사 행복임대주택 복합건설사업 추진, 곱들락한 신산머루 만들기 도시재생 사업, 동의 상징물인 말조형물 설치, 역사와 전통문화의 가치를 계승시키기 위한 15년 만의 동지(洞誌)편찬, 도의회 확정선거구 통합 반대 시위, 일도2동장 주민직선제 시범실시 청원, 동계평창올림픽 성화봉송 구간 변경 요청을 통한 고마로 특화거리 홍보퍼레이드 등 지역주민들과 함께 크고 작은 일들을 차질 없이 열심히 추진해왔다.

동 주민센터는 과거 소방서로 사용되던 오래된 건물이어서 매 해마다 신축하여 줄 것을 시에 건의 하였으나 안전도 검사에서 항상 B등급을 받게 되어 무산되곤 했었다.

하지만, 보는 시각을 달리하여 주민에 대한 행정 및 문화, 복지 서비스와 동 공무원에 대한 업무환경, 복리후생 등의 소프트웨어 부분을 이해시키고 강조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접근해 나가게 되어, 지금에 와서 동 주민센터 청사 및 행복임대주택 복합건물로 건설하기에 이르렀고, 2019년도 말에 착공하여 2021년도 하반기면 새롭게 단장된 동 주민센터와 청년들을 위한 보금자리가 마련하게 된다.

이 외에도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청소년 우범지역이었던 고마정공원(제19호 공원)인 경우 현수막 게시대를 철거하여 작은 공연무대를 만들어 주민들의 문화 쉼터로 자리 잡게 되었다.

구 e중앙병원인 경우 장기휴업(현재 폐업)이 1년여 동안 계속되고 또한 제주시 노형동으로 새롭게 s중앙병원 개원함으로써 당해 지역에는 유동인구가 줄어들고 상가 등이 이전하거나 폐업 하는 등 원도심 슬럼화가 가속화 되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이를 지역문제로 이슈화 하여 지역주민들과 통장들을 만나고 그 해결 방법을 만들기 위하여 자생단체협의회 및 주민자치위원회 정례회의를 통하여 접근하게 되었고, 중앙병원 원장과 도청 관계자들을 만나는 등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지금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매입하여 창업클러스터,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공간등 원도심 활성화 계획을 유치하는 계획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보류중이라는 사실을 매스컴을 통하여 알게 된 후, 자생단체 및 주민자치위원회 회원들과 함께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를 항의 방문하여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조요청을 재차 요구하여 긍정적인 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전국에서 일도2동을 방문하기 위한 잦은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전국에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뿐만 아니라 인천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각급 기관, 대전광역시 의원, 화성시(시장 및 참모진) 등 벤치마킹 차 일도2동 방문을 지난 3년 동안 20여회를 거듭하고 있을 만큼 일도2동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졌다.

이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 변화하는 일도2동"을 위한 주민자치위원들과 자생단체 및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참여속에서 이루어진 결과이다.

앞으로도 주민자치위원 뿐만 아니라 자생단체 및 주민 모두가 지역공동체를 이루어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이슈화 하여 스스로 해결하는 앞서가는 일도2동이 되리라 본다.

일도2동 주민자치위원장 한 재 립



오피니언



문영택

사단법인 질토레비 이사장

노마지지(老馬之智)의 지혜를 나누려(上)



우연히 들은 친구의 이야기에서 커다란 교훈을 얻는 경우가 더러 있는가 보다. 최근 오랜 친구와의 술자리에서 차마설(借馬說)에 관한 얘기를 들었다. 차마설은 이곡(1298~1351)의 한문 수필로 남의 말을 빌려 타면서 얻은 교훈을 적은 글이다. 고려 학자인 이곡은 집이 가난하여 말도 없는 가난한 선비였다. 그래서 평소 말을 빌려 타곤 했다. 볼품 없는 말을 빌려 탈 때는 자기 몸을 위해 조심하게 되어 다치는 일이 없지만, 간혹 좋은 말을 빌려 탈 때면 으시대다가 떨어져 다칠 때가 많았다. 차마설은 말을 빌려 탄 경험을 통해서 사람에게 진정한 소유물이 없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글이다. 모든 재물이든 권세가 남에게서 잠깐 빌린 것임을 깨우친다면, 빌린 것을 온전히 되돌려 줄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는 것이란 사실 아무 것도 없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남에게서 잠깐 빌린 것이라는 차마설의 내용을 공감하게 된다.

하계올림픽에서 동물과 함께 출전하는 유일한 종목이 마장마술이다. 그만큼 말은 인간과 가장 친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동물인 셈이다. 천우숙(天雨粟) 마생각(馬生角)이란 고사성어가 있다. 하늘에서 곡식이 쏟아지고 말 머리에 뿔이 난다는 의미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을 나타내는 이 말은 어쩔 청마를 두고 하는 말인지도 모른다.

환갑을 맞은 지 서너 해를 보내는 내가 그동안 수없이 들은 말은 말이다. 생사고락을 다한 후 나의 뼈를 묻으려는 곳이 곧 말의 고향 제주이기에, 나와 말과의 관계는 상상속의 벗과 같은 존재이기도 하다.

제주에는 수많은 말들을 기르며 다양한 목축문화를 일구어왔다. 제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인 영주10경 중 9경이 고수목마이다. 한라산 자락 수풀 속에서 뛰노는 말은 예나 지금이나 보는 이들에게 삶의 생동감을 안겨준다. 정부가 제주를 전국에서 유일한 말산업 특구로 지정한 것은 어쩔 당연하다 하겠다.

41면의 화폭에 제주의 다양한 풍광이 그려져 있는 이 형상 목사의 탐라순력도에는 말이 유독 많이 등장한다. 말에 관련된 화폭인 '공마봉진, 산장구마, 우도점마' 등에 모두 9천여 필이 등장한다. 이는 말 생산이 제주의 기간 산업이었음을 뜻한다 하겠다.

오름과 화산송이, 역새와 유채꽃, 지상의 흑룡만리 발담과 산담, 지하의 화려한 색상의 동굴궁전, 청초한 바다의 빛깔과 한라산 풍설 등 제주의 자연은 다채로운 색을 지니고 있다. 이처럼 제주의 자연을 담으며 자라온 말은 다양한 색상과 함께 성미가 온순하고 순박하며, 우직하고 충성스럽다.

조선이 제주에 설치한 국영목장 10소장과 산마장에서 기른 제주마는 명마로 인정을 받았기에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일본 등지로 실려나갔었다. 조선 초기 60년간 약 5만 여필의 말이 명나라의 강요에 의해 반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중 대부분이 제주마였다 한다. 해마다 동짓달에 사신과 함께 동지마로 제주마를 가져간 것이다.

우리고장 일도2동에는 고마로가 있다. 아주 오래전 우리동네에는 수많은 말들이 길러졌던 곳이기도 하다. 유사 이래 인간과 동반자적 관계라서 그런지 말에 관한 고사성어도 많다. 죽마지우, 마각노출, 새옹지마, 지록위마, 주마간산, 천고마비 등. 그 중 나는 노마지지의 뜻을 좋아한다. 춘추시대의 제나라 환공 때의 일이다. 환공은 명재상 관중을 대동하고 고죽국을 정벌하러 나섰었다. 전쟁이 길어져 그해 겨울에야 끝났다. 그들은 흑한 속에서 지름길을 찾아 귀국하다가 그만 길을 잃고 만다. 진퇴양난에 빠져 떨고 있을 때 관중이 말했다. "이럴 때는 늙은 말의 지혜(老馬之智)가 필요하다." 그러고는 늙은 말 한 마리를 풀어 놓았다. 그들 일행이 말 뒤를 따라 행군한 지 얼마 안 되어 큰길이 나타났다. 가을이 지나가고 있다. 가을의 길목에서 인생의 지혜 하나 얻을 수 있다면 그 또한 삶의 기쁨이자 즐거움일 것이다. 천고마비의 계절에 죽마고우인 한 친구로부터 주마간산격이나마 노마지지의 교훈을 얻은 나는 이 순간이나마 행복하다. (계속)

기고

일도2동지(洞誌) 편찬을 마치며(동지발간기념식에 부쳐) ..



2018년 연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15년 만에 일도2동의 변화된 모습을 기록하는 동지(洞誌) "함께해요 일도2동의 꿈"을 제작하는 힘든 여정을 시작했다.

맞추어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 내는 것이 이렇게 어렵고 두려운 일임을 절감했다.

그러나 50여 년을 인화동에 살면서도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던 일도2동의 구석구석을 둘러보고 사진을 찍으면서, 내가 살고 있는 일도2동의 매력을 확인할 수 있는 뜻있는 모험이었고, 제주의 역사를 들여다볼 수 있는 즐거운 경험이 되었다.

다시 올 수 없는 즐거운 기회였고 자랑스러운 작업이었다. 어떤 편집위원은 한여름의 더위를 참으며 원고의 확실성을 확인하기 위해 발이 부르 뜨고, 어떤 위원은 동네 어르신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일도2동의 역사를 확인했다.

이 귀찮은 일들은 내가 살고 있는 일도2동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으리라. 그러나 모든 일에 좋은 결과만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 과정 중 불편한 일들도 더러 있었으리라.

그러나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기 위한 과정중의 하나라면 이 역시 용서되리라 믿는다.

2018. 11. 30. 11:00 하니크라운관광호텔 별관에서 고희범 시장님과 지역도의원, 지역주민 150명을 모시고 동지(洞誌) "함께해요 일도2동의 꿈" 발간기념회를 개최하면서 느끼는 소회는 이루 말할 수 없음이다. (3쪽 계속)

2018. 11. 30. 11:00 하니크라운관광호텔 별관에서 고희범 시장님과 지역도의원, 지역주민 150명을 모시고 동지(洞誌) "함께해요 일도2동의 꿈" 발간기념회를 개최하면서 느끼는 소회는 이루 말할 수 없음이다. (3쪽 계속)

2018. 11. 30. 11:00 하니크라운관광호텔 별관에서 고희범 시장님과 지역도의원, 지역주민 150명을 모시고 동지(洞誌) "함께해요 일도2동의 꿈" 발간기념회를 개최하면서 느끼는 소회는 이루 말할 수 없음이다. (3쪽 계속)

2018. 11. 30. 11:00 하니크라운관광호텔 별관에서 고희범 시장님과 지역도의원, 지역주민 150명을 모시고 동지(洞誌) "함께해요 일도2동의 꿈" 발간기념회를 개최하면서 느끼는 소회는 이루 말할 수 없음이다. (3쪽 계속)

2018. 11. 30. 11:00 하니크라운관광호텔 별관에서 고희범 시장님과 지역도의원, 지역주민 150명을 모시고 동지(洞誌) "함께해요 일도2동의 꿈" 발간기념회를 개최하면서 느끼는 소회는 이루 말할 수 없음이다. (3쪽 계속)

2018. 11. 30. 11:00 하니크라운관광호텔 별관에서 고희범 시장님과 지역도의원, 지역주민 150명을 모시고 동지(洞誌) "함께해요 일도2동의 꿈" 발간기념회를 개최하면서 느끼는 소회는 이루 말할 수 없음이다. (3쪽 계속)

2018. 11. 30. 11:00 하니크라운관광호텔 별관에서 고희범 시장님과 지역도의원, 지역주민 150명을 모시고 동지(洞誌) "함께해요 일도2동의 꿈" 발간기념회를 개최하면서 느끼는 소회는 이루 말할 수 없음이다. (3쪽 계속)

고마로마문화축제 이모저모



탐라문화제 이모저모



지역민들의 격려와 축하 속에서 지난 10개월의 힘들고 짜증나던 모든 일들이 눈 녹듯 사라짐은 인간이 감사함을 다시 느끼게 한다.

숨 가쁜 인생길 이리저리 넘어져보니 어느새 함께 가는 벗이 생겼고,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고 아껴주는 아름다운 이들이 함께 가고 있다고 했다.

결코 만만치 않은 우리 삶 스스로 터득한 삶의 지혜와 깨우침을 준 편찬위원 모두에게 참 고맙다고 말하고 싶다.

처진 어깨 감싸주고 토닥이며 참 좋은 이들과 함께 가는 동행 길 또한 내 인생의 행복이리라.

기획부터 집필·편집·교정·인쇄의 모든 과정을 함께 해주신 사랑하는 나의 선배님 문영택 편집위원장님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편찬위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함께해요 일도2동의 꿈〉 소식지 편집장 김 두 경





인화초등학교

**2018 제주교육문화예술축제
동요경연대회 은상 수상**



‘인화사람합창단’은 2018년 11월 24일(토) 제주학생 문화회관 소극장에서 열린 『2018 제주교육문화예술축제』 동요경연대회에 참가하여 은상을 수상하였다. 임미주 외 11명의 인화사람합창단은 멋진 안무와 하모니로 ‘살레 아레 중이가’라는 곡을 불러 관객들에게 감동과 웃음을 선사하며 은상을 수상했다.

가족과 함께하는 숲길 행복나들이



인화초등학교(교장 송만선)는 9월29일(토) 오전9시부터 2018학년도 학부모 학교 참여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가족과 함께하는 숲길 행복나들이” 행사를 실시했다. 총 40가족 120여명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에서 실시되었다. 비오는 날씨로 인해 숲길걷기 활동은 하지 못했지만 우리나라 최초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에 대한 전시물을 관람하고 제주 설화에 관한 영화를 관람하였다. 이 행사를 통해 가족과 함께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고 가족사진도 찍으며 가족 간의 사랑을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동광초등학교

**2018 꿈.끼 탐색주간
진로체험부스 운영**



동광초등학교(교장 부태준)는 10월 31일 2시부터 4시까지 전교생이 참여하는 ‘꿈·끼 탐색주간 진로체험부스’를 운영하였다. 체육관(꿈별관)과 운동장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학부모회에서도 3개의 부스를 운영하고 영어팀, 영재학급, 수학년동아리, 스포츠클럽 배구동아리 학생들의 재능기부로 프로그램이 이루어졌다. 학부모회에서는 개운죽화분, 색종이팬이, 장명루 만들기 등을 통한 우리문화 알기 코너를 운영하였고, 학생들은 학생 선생님의 지도로 다양한 수학, 과학체험과 배구의 기본기능을 익히고 보너스로 상품을 받는 행운까지 겹칠일 수 있었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관심있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자신의 ‘꿈과 끼’를 기르는 체험의 장이 되었다.

일도초등학교

**일도초, ‘라온앙상블’ 2018
제주교육문화예술축제 참가**



일도초등학교(교장 이정미) 바이올린 동아리 ‘라온앙상블’은 2018년 11월 23일(금)에 제주학생문화원 소극장에서 열린 2018 제주교육문화예술축제에 참가하였다. 올해 첫 번째로 축제에 참가한 ‘라온 앙상블’은 3~6학년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1년 동안 꾸준히 연습한 ‘카데츠키행진곡’의 1곡을 연주하며, 고운 바이올린 선율로 무대를 가득 채워 관객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이번 축제를 통해 꿈과 끼를 발휘하고, 다른 학교 공연 및 전시작품도 감상하는 보람 있는 시간이 되었다.

**일도초, 원도심학교
학부모교실(공예체험) 열려**



일도초등학교(교장 이정미)는 2018년 10월 17일(수) 본교 과학실에서 원도심학교 학부모교실을 운영하였다. 학부모 교실에 앞서 2학기 주요교육활동에 안내가 있었고, 원도심학교 학부모의 문화예술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마련되었다. 제주 중진여류 작가인 조윤득 강사를 초청하여 진행된 공예체험 시간에는 동백씨방(동백씨를 감싸고 있던 씨방이 말라 갈라지면서 떨어진 것)에 매니큐어를 활용한 동백 브로치 만들기과 가족과 소품을 활용한 가족브로치 만들기를 하였다. 학부모님들이 바쁜 일손을 잠시 뒤로 하고 참여한 만큼 삶의 폭을 넓히고 생활에 활력소가 되어 지역사회와 학교와의 관계에 있어 원만하고 협조적인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제2회 인재5대명품배
전국 남녀 소프트발리볼대회 전국 제패**



동광초등학교(교장 부태준)는 2018년 11월 3일(토) 강원도 인제군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제2회 인재5대명품배 전국 남녀 소프트발리볼대회’에 초등부 남자 2팀, 초등부 여자 1팀이 참가하였다. 경기 결과, 초등부 남자 6학년 강근혁, 고경오, 고정은, 백원주 팀이 우승을 하였다. 그리고 6학년 고륜서, 김태영, 김현서, 진예준, 최우석, 팽빈도 팀이 준우승을 하였다. 여자 초등부 경기에서도 6학년 강서현, 김지민, 김지유, 이지우, 윤사랑, 현민지 팀이 우승을 차지하였다. 지도교사 김태환은 지난 9월 제12회 2018 기업은행 전국유소년배구클럽대회에서 전국 3위를 획득한 이후 이번 소프트발리볼대회에서도 전국 제패를 이루었다.

문화에 배바지다

지금은 작가와 관객이 따로없는 생활문화의 시대이다.
시민의 문화 향유가 높아야 시민의 행복도가 높아진다.
일도이동에는 문화예술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이 있고,
국립제주박물관이 옆에 있어서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많다.
바쁜 일상에 찻잔이 시간을 내어 내 마음의 창을 채워볼 만하다.

문화예술진흥원

자청비(自請妃)-오름에 부는 바람

- 일시 : 2018. 12. 07 ~ 8. 19:30
- 관람료 : 개인 5,000원, 단체 (20인) 4,000원, 65세 이상 무료
- 장소 : 문화예술진흥원 대극장 • 문의 : 064-710-7641

제주YMCA유스오케스트라 제 37회 정기연주회

- 일시 : 2018. 12. 11. 19:30 • 관람료 : 무료
- 장소 : 문화예술진흥원 대극장 • 문의 : 010-2949-1175

제주클라리넷앙상블 제16회 정기연주회

- 일시 : 2018. 12. 13. 19:30 • 관람료 : 무료
- 장소 : 문화예술진흥원 대극장 • 문의 : 010-5691-7880

기획공연 뮤지컬 '하모니' <들어봐, 끝나지 않을 우리 노래를>

- 일시 : 2018. 12. 16. 15:00 / 19:00
- 관람료 : 1층 15,000 / 2층 10,000
- 장소 : 문화예술진흥원 대극장 • 문의 : 064-710-7643

기획공연 7080콘서트 <응답하라 7080>

- 일시 : 2018. 12. 20. 19:30
- 관람료 : 1층 15,000 / 2층 10,000
- 장소 : 문화예술진흥원 대극장 • 문의 : 064-710-7643

KBS제주방송총국 어린이 합창단 제37회 정기연주회

- 일시 : 2018. 12. 23. 19:30 • 관람료 : 무료
- 장소 : 문화예술진흥원 대극장 • 문의 : 010-7179-8401

2018제주지회 정기회원전 및 한·중 교류전

- 일시 : 2018. 11. 30. ~ 12. 04. • 관람료 : 무료
- 장소 : 문화예술진흥원 제1전시실 • 문의 : 064-710-7633

한국건축가협회 제주건축가회 회원전 및 5대 광역시 교류전

- 일시 : 2018. 12. 05. ~ 09. • 관람료 : 무료
- 장소 : 문화예술진흥원 제1전시실 • 문의 : 064-710-7633

제3회 캘리그라피오일 제주 멋글씨전

- 일시 : 2018. 12. 05. ~ 09. • 관람료 : 무료
- 장소 : 문화예술진흥원 제1전시실 • 문의 : 064-710-7633

제8회 제주기독교 사진가협회 회원전

- 일시 : 2018. 12. 10. ~ 14. • 관람료 : 무료
- 장소 : 문화예술진흥원 제1전시실 • 문의 : 064-710-7633

생명의 숲 꽃자왈

- 일시 : 2018. 12. 15. ~ 20. • 관람료 : 무료
- 장소 : 문화예술진흥원 제1전시실 • 문의 : 064-710-7633

감빛에서 묵향으로

- 일시 : 2018. 12. 21. ~ 26. • 관람료 : 무료
- 장소 : 문화예술진흥원 제1전시실 • 문의 : 064-710-7633

2018 제주목관아 서예체험 작품 전시

- 일시 : 2018. 12. 27. ~ 31. • 관람료 : 무료
- 장소 : 문화예술진흥원 제1전시실 • 문의 : 064-710-7633

제주 민속자연사박물관

대한민국을 구한 제주인

한국전쟁 참전 용사를 중심으로



4·3 70주년 6.25 68주년 특별전 『대한민국을 구한 제주인』

- 일시 : 2018. 11. 12 ~ 2019. 02. 28
- 장소 : 민속자연사박물관 수놓음관 특별전시실
- 문의 : 064-710-7704

세시풍속 체험행사 - 12월 동지

- 일시 : 2018. 12. 22
- 장소 : 민속자연사박물관 광장 • 문의 : 064-710-7693

법률상식

사망한 부모의 빚을 물려받지 않을 수 있는지?

문: 제 부친은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여 많은 채무를 지고 채권자들로부터 독촉을 받아 오던 중 얼마 전 돌아가셨습니다. 제 능력으로는 부친이 남긴 채무를 갚을 길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답 상속에 관하여 '민법' 제997조는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05조는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부모의 사망과 동시에 자식들은 상속인이 되어 부모 명의의 토지나 집과 같은 부동산이나 은행예금 등의 적극적 재산은 물론, 부모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대여금 채무, 보증 채무 등의 소극적 재산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일신전속적인 권리를 제외하고는 부모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물려받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가 남긴 상속재산 중 적극적 재산보다 소극적 재산이 더 많아 자식들이 이와 같은 권리·의무의 승계, 즉 상속을 받지 않으려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면 됩니다(민법 제1019조).

상속포기를 하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일단 발생한 상속의 효력, 즉 권리·의무의 승계는 부인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이 되며, 일단 상속을 포기한 후에는 이를 다시 취소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24조 제1항, 제1042조)

또 다른 방법으로는 부모가 남겨놓은 적극적 재산의 한도 내에서 부모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한정승인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신청도 역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

주민주원위원회기획과장 한 경 모

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1028조, 제1030조).

또한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민법 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따라서 귀하의 경우와 같이 부친이 빚만 남겨두고 돌아가셨고, 상속포기신고기간 등이 아직 경과하지 않았다면 조속히 관할 법원에 상속포기신고 또는 한정승인신고를 함으로써 상속채무에 대한 면책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신청을 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그 신청 후 상속재산을 은닉 또는 부정소 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하는 등의 행위를 한 때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6조)



- 자생단체 -
일도2동청소년지도협의회



한 관 섭

일도2동청소년지도협의회 회장

열린 혁신 의지로 올바른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기대 한다

「열린 혁신」이란 기업의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고, 기술·제품·프로세스를 확보함으로써 기업의 다양한 활동이나 시장 제품 등을 혁신하는 것을 말한다.

제주시에서도 「2018년 열린 혁신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추진 중인데 그 핵심 내용은 주민참여를 확대하여 행정의 낡은 관행을 타파하고, 공직사회의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음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목표로 해오던 경제적 가치 추구를 뛰어넘은 사회적 가치의 구현을 통해 인권의 보호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환경의 유지 등 공공의 이익 창출로 공동체의 발전을 이뤄내려 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에서의 변화에 발맞춰 최근 지역의 자생단체들도 조직 활성화를 다지고 행정에 적극 협조하기 위한 다양한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다. 내가 활동하고 있는 「일도2동청소년지도협의회」는 지난 1996년 설립된 이래로 23년 동안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

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동행정과 유기적으로 협조하며 각종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주요 사업 내용들을 보면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 및 단속 캠페인 전개, 공원과 학교 주변 야간 방법활동,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학교 밖 폭력 예방 활동, 어린이공원 풀베기 등 환경 정화 사업 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오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주지역에서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청소년 주류 판매 적발 건수는 2016년 43건, 2017년 29건 등으로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데 지난해만 하더라도 일반음식점 26건, 유흥주점 2건, 단란주점 1건씩 청소년 주류 판매 행위로 적발됐다. 청소년에게 주류 등을 판매하다가 적발되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사업장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비록 일부 업소이긴 하지만 청소년 대상 주류 판매를 묵인하거나 업주가 신분 확인을 제대로 거치지 않는 경우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은 큰 문제이다.

이에 대응하여 우리 일도2동청소년지도협의회는 청소년지도위원들은 앞으로 보다 더 열린 혁신 의지로 청소년 유해환경을 개선하여 사회를 밝아지게 하는데 일조할 계획이다. 특히 청소년의 출입이나 고용이 금지된 업소와 술, 담배를 판매하는 업소의 대표자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출입, 근로, 구매 등을 하지 못하게 주민등록증과 같은 연령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의 제시를 반드시 요구하도록 캠페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관내 업소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것이다.

또한 방과 후 갈 곳이 없어 해매는 학생들이나 부모님의 학구열에 힘들어 휴식이 필요한 학생들이 청소년 유해업소로 이탈하지 않도록 또래친구들과 함께 모여 탁구와 같은 실내 운동은 물론 댄스와 노래를 즐기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신의 기량도 발휘할 수 있는 청소년 문화공간이 새로 지어지는 일도2동주민센터 건립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동행정과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갈 것이다.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캠페인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홍보 활동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응원

일도2동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사항



주민자치학교 운영



초등학생과 함께하는 환경교육 체험 특화프로그램 운영



제주시 주민자치박람회 일도2동 홍보부스



2018 백석동주민자치위원회 방문



황산면주민자치위원회 방문



성남시 분당구 이매1동 주민자치위원회 방문

사/람/과/사/람/들

일도2동 공공기관 합동소방훈련 실시



일도2동주민센터(동장 부태진)에서는 2018. 11. 13. (화) 15:00에 주민센터에서 동주민센터 직원, 지역자율방재단, 향만119센터 등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공기관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하였다.

일도2동 현안사항 논의를 위한 자생단체장 회의 개최



일도2동(동장 부태진)에서는 2018년 11월 15일 (목) 11시에 주민센터 2층 회의실에서 자생단체장과의 간담회를 개최 하였다. 간담회에서는 일도2동 체육회 설립의 건, 일도2동지 발간기념회 계획 및 100인 시민원탁회의 토론 참가자 모집 등에 대한 홍보와 함께 간담회를 실시 하였다.

일도2동 통장협의회 재활용품 재생산 현장 견학



통장협의회(회장 고광언)는 16일과 17일 통장협의회 및 주민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자원 재활용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재활용품 분리배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재활용품 재생산업체인 한라공병과 제주 클린에너지 2곳에 대한 현장 견학을 실시했다.

일도2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그린쉼터 새마을동산 풀베기 및 환경정비 실시



일도2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문동진)에서는 2018. 11. 17. (토) 회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오전 7시00분부터 관내 그린쉼터 새마을동산 및 올레길 일대 풀베기 및 쓰레기 수거 등 환경정비를 실시하였다

홀로 사는 어르신 생일상 차리기 행사 및 어려운 이웃돕기 김치 나눔 행사 개최



일도2동 새마을부녀회(회장 박은희)에서는 10월 27일 복지회관에서 회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홀로 사는 어르신 20여명을 대상으로 생일상 차려드리기 행사를 진행했으며, 11월 4일에는 회원 20명과 결혼이주여성 20여명이 참여하여 어려운 이웃돕기 김치 나눔 행사를 진행하였다.

바르게살기운동일도2동위원회, 거리 질서 캠페인 전개



바르게살기운동일도2동위원회(위원장 강찬중)에서는 11월 1일 인제사거리 및 관내에서 회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리질서 캠페인을 전개했다.

일도2동 방위협의회 안보우수사례 선진지 견학



일도2동 방위협의회(회장 박경호)는 2018. 11. 10 (토) ~ 11월 11일(일) 1박 2일로 완도, 목포 일대로 일도2동 방위협의회 우수사례 선진지 견학을 추진하였다.

일도2동연합청년회, 취약지역 방범활동 전개



일도2동 연합청년회(회장 부만철)는 2018. 10. 19 (금) 저녁 8시부터 관내 교육시설인 인화초, 동광초 주변 및 그린쉼터 등을 중심으로 청소년 탈선 방지 및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야간 방범활동을 전개하였다.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활동 전개



일도2동 청소년지도협의회(회장 한관섭)에서는 2018. 11. 15. (목) 관내 학교 주변에서 수능 후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캠페인과 청소년 유해업소 대상 계도·단속을 전개하고, 수능 후 긴장감에서 해방된 청소년들의 일탈행위를 예방하는데 앞장서기로 결의하였다.

장애인가구에 김치 선물 전달



일도2동 장애인자원협의회(회장 이승훈)는 2018. 10. 25. (목) 회원 20여명이 모인 가운데 관내 저소득층 장애인 14가구를 방문하여 김치를 전달하였다.

일도2동 탐라문화제 민속예술경연



일도2동민속보존회(회장 조창운)에서는 제57회 탐라문화제 민속예술경연 출연은 읍면동 순번제 참가로 결정되어, 올해는 일도2동과 한림읍이 해당되어 일도2동민속보존회가 사또놀이를 주제로 80여명이 공연하였다(최우수상 수상)

일도2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모다들영 출래 멍글앙 복지사각지대 취약가구 지원사업"



일도2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부태진, 강창근)에서는 2018. 11. 19. (월) 두땡이복지회관에서 "모다들영 출래 멍글앙 복지사각지대 취약가구 지원사업"을 개최하여 관내 취약계층에 전달할 밑반찬을 만드는 시간을 가졌다.

시민이 주인인 **행복** 도시, 제주시

“작은 편의보다는
기초질서를 지켜
이웃과 함께하는 사회!
시민이 주인인
행복도시 제주시를
만드는 **기본**입니다.”

모두의 도시 프로젝트

기본

기본은 모든 사람의 기초와 근본을 말합니다.

쓰레기는 투기의 대상이 아닌 자원입니다.

올바른 주·정차는 이웃 간의 배려입니다.

도로는 사유지가 아닌 모두의 것입니다.



쓰레기
일회용품 안 쓰기
올바른 분리배출하기
쓰레기 불법투기 안 하기



주차
주변 주차장 이용, 걸어서 이동하기
인도·횡단보도 위 주차 안 하기



도로
상가 내 집 앞 도로 위 물건 적치 안 하기

제주도 축제

12월 -

• 한라산눈꽃축제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 어리목 일원)

01월 -

• 성산일출축제 (제주특별자치도 성산일출봉 일원)
• 한라산눈꽃축제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 어리목 일원)

02월 -

• 탐라국입춘굿놀이 (제주시 제주목관아 일원)

03월 -

• 제주들불축제 (제주시 새별오름)

04월 -

• 제주왕벚꽃축제 (제주시 전농로 일대)
• 가파도청보리축제 (서귀포시 가파도)
• 서사라문화거리축제 (제주시 서사라문화거리)
• 제주유채꽃축제 (서귀포시 가시리 일대)
• 한라산청정고사리축제 (서귀포 남원읍)
• 우도소리축제 (제주시 우도)

05월 -

• 우도소리축제 (제주시 우도)
• 방선문축제 (제주시 방선문)
• 제주국제관광마라톤축제 (김녕, 월정해변 일대)

06월 -

• 보목자리돔축제 (서귀포시 보목항 포구)

2018년 4월 1일부터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 이렇게 달라집니다.

지난 1년 동안 시민 여러분의 협조 덕분에
매립쓰레기는 줄고 재활용품은 크게 늘어났으며 도시가 깨끗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적극 동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일별·종류별 이렇게 배출합니다

- 격일 배출 : 플라스틱(월·수·금·일), 종이류(화·목·토)
- 매일 배출 : 스티로폼, 병류, 캔·고철류, 흰색종량제 쓰레기 봉투, 음식물 쓰레기

월	플라스틱 (PET병 등)	화	종이, 불연성 (유리류, 연필, 자기류, 거울 등)	수	플라스틱 (PET병 등)	목	종이, 비닐 (리본, 포장지 등)
금	플라스틱 (PET병 등)	토	종이, 불연성 (유리류, 연필, 자기류, 거울 등)	일	플라스틱, 비닐 (PET병 등, 리본, 포장지 등)	재활용품은 떼고! 씻고! 접고! 묶어서 배출합니다.	

■ 배출시간 : **오후 3시부터 익일 새벽 4시까지(15:00~04:00)**
※동지역 음식물 개별계량장비(RFID)는 24시간 배출가능합니다.

쓰레기배출 수수료 안내 및 유의사항

종량제 봉투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	
규격	판매가격	플랜하우스 음식물 개별계량장비(RFID) 배출(kg당 30원) 천용용기를 이용하는 사업장 (소형용식점 등: kg당 51원 • 다량배출사업장: kg당 106원)	<div> <div> 봉투에 타는 쓰레기 (특수용-PP아대) </div> <div> 봉투에 타는 쓰레기 (한정 종량제봉투) </div> </div>
일반 재사용	5L		 
	10L		
	20L		
	30L		
특수용 (PP아대)	50L		
	20L		
	40L		

※ 1톤: 불연성봉투(녹색) ➡ 특수용PP아대로 변경
 (가정용 난방용)는 불연성 봉투(파란색) 사용함

쓰레기 배출시 유의사항

- 생활쓰레기 중 가연성과 불연성 쓰레기 분리배출
- 봉투에 타는 쓰레기(가연성) ➡ **재활용품 혼합 배출 금지**
- 봉투에 안타는 쓰레기(불연성)
(유리류, 연탄재, 자갈류, 거름 등)
- ※ 종량제 봉투 사용이 어려운 곳은 **대형계기물로 신고 후 배출**

※기본 종량제봉투(5L)는 100% 재활용(PP아대)으로 변경 (다량에 남아있는 불연성 봉투(5L)는 사용가능)

제주시 열린혁신 추진방향

비전

시민이 주인되고 모두가 행복한 제주시

목표

사회적 가치 중심의 제주시정 혁신

3대 전략



7대 핵심 과제

